

축 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지혜로운 논의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내외 종교와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상의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성과물들이 하루아침에 파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랜 가뭄, 예측 불가능한 태풍과 홍수 등 극심한 기후현상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종교를 비롯한 시민사회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전 세계 인구의 80%가 종교인구라는 점에서 종교계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각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 큰 전환점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올해 11월, 파리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전 세계 종교계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오늘의 컨퍼런스는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과 마음, 그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존재들의 상호의존과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삶이 모든 뜻 생명에 연관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모든 사물과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보지 못한 채,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사회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부처님의 연기적이고 중도적인 가르침은 기후변화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애니미즘 등의 종교 전통에서도 우리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이와 같은 생명존중의 종교적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속에 확산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해법 마련에 반영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컨퍼런스에서 생명을 갖춘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의 대안들이 마련되고, 그 뜻이 국제사회에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